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7호 【루제 제25606호】 주체106(2017)년 4월 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아랍사회부흥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아랍사회부흥당 지도부와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랍사회부흥당은 창건후 지난 70년간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며 아랍민족의 단결과 존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아랍사회부흥당은 당신의 령도밑에 내외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침략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걸히 투쟁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아랍사회부흥당과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다시한번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면서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106(2017)년 4월 6일 평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에서 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싼떠아고 마리뇨군 볼리바르리사회에서 싼떠아고 마리뇨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훈장을 수여해드리는 모임이 3월 31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베네수엘라기발이 게양되여있었다.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싼떠아고 마리뇨군볼리바르리사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부위원장,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베네수엘라국가주악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결정서가 랑독되였다.

결정서는 김일성각하께서 제시하신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침으로 되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업적을 칭송하여 그이께 싼떠아고 마리뇨훈장을 수여해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여해드리는 훈장과 증서를 리사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에 맞서 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시고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시여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계신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위대한 모범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길이 빛내이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으며 조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정치적사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을 혁명의 전두에 모시는것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다.

가장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여 이 땅우에는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가 세세년년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들을 밝혀주시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위력한 정치로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하시였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자강력제일주의를 깊이 심어주시며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강원도정신과 같은 시대의 본보기정신이 창조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종합적국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는 더욱더 앞당겨지고있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모든 긍지와 영예, 자부심의 근본원천이며 행운중의 행운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리영철은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빛나게 실현하시고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당사상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시여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의 당,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비상히 강화해나가시였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갈수 있는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시고 당의 통일단결을 억척으로 다져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참다운 어머니당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데 있으며 당의 참모습은 행복넘친 인민의 모습에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당사업의 철칙으로 삼고 일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오늘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찬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딱 들어찬 사상적순결체,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필승불패의 당,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인민군부대들을 틈없이 찾고찾으시며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전능력을 지닌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키워주시였다.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신과 로고속에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핵무기연구부문에서는 미제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주의 신념, 무비의 탁력과 배짱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뭉개버리시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억척같이 다져온 무적의 군력에 의거하여 드세찬 초강경공세로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무턱무턱의 대승리를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자주와 정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간섭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앞장에서 구축해나가고있다.

내각부총리 전광호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만리마속도로 질풍노도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수호전과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최상최대의 성과를 최고의 속도로 창조해나가는 조국번영의 새시대는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만리마의 속도로 폭풍쳐 내달려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중대한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부여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전인민적인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친 당의 령도를 총정으로 받들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거세찬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발휘된 투쟁기풍을 본받아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불굴의 정신력과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는 자력자강의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믿음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불굴의 신념,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세워주며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힘있게 추진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토론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자

태양절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 회의 진행, 선언문 채택

태양절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 회의가 3월 24일에 진행되였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전국기자구락부 선군정치학습 및 연구연단,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보다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선언문이 채택되였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을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네팔인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다.

우리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업적토론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주석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쌓으신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사상이며 업적이다.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의의있게 경축할것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호소한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적극 선전하자!

반제투쟁전선에 단결하여 나서자!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자!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월 16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파키스탄의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희세의 영웅, 탁월한 정치가, 뛰여난 군사전략가이시라고 격찬하고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만리마속도로 힘차게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상원 의원 지안찬드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3월 27일 로씨아련방공산당 아무르주위원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아련방공산당 아무르주위원회 제1비서 엘. 아. 꼬비조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경축 스리랑카준비위원회가 3월 22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감과하지부 위원장 프라디프 위제라트나 세카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경축집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베루준비위원회가 3월 20일 리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베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따니 발레르 로베라가, 부위원장으로 베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서기장 엘레아싸르 라모스 로아르테가, 서기장으로 베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축집회,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상계관도서 《인민들속에서》를 펼치며 (1)

인민은 영원히 목메여 부르리라, 아! 우리 어버이

한없는 위대함과 고매한 덕성에 가슴이 젖어들어 책을 읽다가도 머리를 들고 하염없이 우리 수령님 생각을 하게 하는 김일성상계관도서 《인민들속에서》!

어느 권, 어느 갈피를 번지여도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다가든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창시하신 사상에 있어서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비범한 령도에 있어서나, 자애로운 인민적수령의 풍모에 있어서나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대성인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1권을 낸 때로부터 오늘까지 106권이나 출판된 도서 《인민들속에서》에 실린 회상실기들은 그대로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는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 거룩한 자욱자욱이다. 인민에게 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다함없는 정과 열의 세계,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영원히 잊을수 없어 각계층의 우리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수령님께서 계실 때보다 더 많은 회상실기들을 심장의 붓으로 써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화창한 4월, 산천의 봄꽃들이 망울터치는 이 계절 우리는 도서 《인민들속에서》를 다시금 펼친다.

하많은 력사의 사연들이 물결쳐온다.

설사 수천권일지라도 못다 담을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와 덕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물과 관련된 우리 수령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14권, 28권, 40권, 79권을 비롯한 도서 《인민들속에서》의 여러 회상실기들에는 마라리물과 련관된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아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온 우리 나라에서 벌방, 두메 그 어디에나 흔한것은 물이다. 하건만 조국해방의 얼과로 강산이 설레이던 시절에 마라리물로 목을 추기던 사람들도 있어 우리 수령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도 태웠으니 열두삼천리벌의 숙천군 창동리(당시)의 남동마을은 그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과 류다른 인연을 맺은 고장들중의 하나이다.

주체37(1948)년 9월 중순이였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사업하던 강량욱선생이 방중에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와서 조용하고 침착한 평시의 성미와는 다르게 《장군님, 어제 남동마을에 가서 마라리물을 마셨다는게 사실입니까?》 하고 다급히 물었다.

수령님께서는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는가고 반문하시였다.

그때 방에는 손님 몇명이 와있었는데 그들은 강량욱선생의 안타까운 말을 듣고 모두 놀랐다.

장군님께서 남동마을이란 곳에 가서 마라리물을 마시셨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 몹쓸 물을 무엇때문에 마시셨단 말인가?

서해기슭 한끝에 있는 숙천군 창동리에서도 동떨어진 남동마을은 해방전엔 일제의 학정아래 쌀걱정에 물고생까지 겹친 사람 못살 고장이였다. 겨우 씨붙임을 한 농작물포기마저 소금기에 절고 가물에 말라죽는 이 고장에서는 우물을 파도 짠물밖에 나오지 않아 벌수없이 곤두벌레가 와글거리는 웅뎅이물을 채로 받아서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웅뎅이에 고인 비물을 민간에서는 마라리물이라고 하였고 식자가 있다는 사람들은 그 물이 병마를 끌어들이는 사한의 오줌이라고 하였다. 남동사람들은 가난한 살림에 물까지 이지러운것을 마시며 살다나니 이름모를 토질병에 걸려 제명을 못 채우고 피를 토하다가 죽어가군 하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남동마을에 들리신것은 사실이였다. 그이께서는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해보이는 잔디로 벽을 쌓은 메장집에 가서 주인을 찾으시였다.

바다바람에 얼굴이 탄 녀인이 지게문을 열고나오다가 수령님을 뵈옵고 굳어졌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나 물 한사발 좀 주십시오 하고 청하시는 수령님, 녀인은 어쩔바를 몰라 집안에 대고 《아부님!》 하고 불렀다. 머리가 소금빛처럼 하얀 늙은이가 기침을 깊으며 지게문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니, 나라의 임금님께서?!》

로인은 신발도 못 찾아신고 토방에서 굴러내려 넙죽 엎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사시나무떨듯 하는 로인을 부축하여 일으켜세우시였다.

로인님, 해방된 우리 나라엔 임금이란 없습니다. 이제 임금처럼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은 로인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이께서 다시 물을 청하시자 로인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이 고장에 와 물을 청하는 손님은 마을이 생긴이래 처음이였기때문이였다.

로인은 죄송스럽게 머리를 조아리였다.

《장군님께 물 한사발도 드리지 못하는 이 못난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이 남동리물은 어지러워서 마시면 아니되옵니다. 군에서 일보시는 어른들도 어찌다 이 마을에 올 때면 물병을 차고옵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그럼 이 마을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고 사는지 보기라도 하자고 하시였다.

머느리가 이빠진 사발에 부연 마라리물을 담아가지고나왔다.

물사발을 받아드신 수령님께서 그것을 천천히 기울여 한모금 넘기시자 로인이 기겁해서 비명을 질렀다. 나라의 임금님께 마라리물을 마시게 했으니 이제 남동마을이 천벌을 받게 됐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님은 아직도 나를 임금이라고 합니까, 우리 나라에서 임금은 인민이고 나는 그 임금의 신하입니다. 로인님이 한평생 마신 물을 한모금 넘겼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십니까, 로인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나는 오늘밤 이 댁에서 자고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시였다.

그 말씀에 로인은 오열을 터뜨리였다. 여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기침을 깊고 피가래를 뱉는 이 마을사람들을 전염병자처럼 멀리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사람대접을 해주시니 감격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수령님께서는 그 메장집에서 마라리물에 끓인 시래기장국으로 음식을 드시고 마을농민들과 밤이 깊도록 담화를 하시였다.

알고보니 80고령으로 보이던 메장집로인은 남동마을에서는 유일하게 60나이에 이른 《장수자》였다. 마을농민들은 수령님을 모신 자리에서도 장작을 패듯이 저마다 요란스럽게 기침을 깊었다. 조용히 앉아있다가도 한사람이 기침을 하면 모두 백날기침병을 앓는 아이들처럼 숨이 넘어갈듯 줄기침을 깊었다. 토질병으로 해서 생긴 기침이였다.

그밤 우리 수령님께서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남동마을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파고드시였기때문이다.

나라는 해방되였으나 할 일은 얼마나 많고많은가. 과연 어느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것인가. 불벼락우는 가을밤이 깊어갈수록 메장집의 방등불밑에서 우리 수령님의 사색은 깊어만 갔다.

물이자 생명이고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이다. 새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살게 하는것을 정치의 천하지대본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력사의 그밤 인민들의 생활에서 물고생, 물걱정부터 영원히 없애버릴 결심을 하시고 백년대계의 관개공사를 구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튿날 평양에 돌아오시자 곧 내각협의회를 열고 청남관개공사에 대한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다.

이렇게 되여 시작된것이 청남관개공사였다.

어찌 청남관개만이였으랴. 기양관개, 악동관개, 서해갑문, 대동강물을 끌어들인 평양시 상수도, 대동강수문, 대동강과 재령강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룡등강을 이은 관개수로, 룡등강과 재령강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남포항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서해를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동해를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백두산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금강산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묘향산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개성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해주를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신의주를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함흥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청진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원산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사리원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신천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강서를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평원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룡강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안주를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순천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덕천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개천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북청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리원을 이은 관개수로, 대동강과 룡천을

뜻깊은 태양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끓어번진다

고산과수종합농장 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원들

대비약창조에로 추동한 집단적경쟁열풍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618건설돌격대에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올해 고산군민발전소와 함께 100여동의 살림집, 돼지목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전같으면 몇해동안 해야 할 건설대상이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이 방대한 건설을 자강력으로 단 한해에 와닥닥 끝낼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돌격대원모두가 그 수행에서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해나가고있다.

현실성있게 짜고든 경쟁조직

일군들은 건설의 선후차작전을 하면서 당면하여 발전소건설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였다. 지난해 착공한 발전소건설을 빨리 다그쳐 끝내면 여기에 집중되였던 로력과 수단을 다른 대상건설에 돌릴수 있었다. 그런데 이 건설은 기성관념으로 볼때 한해동안에 해내기에는 아름찬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던 때 일군들이 명심한것이 있었다. 기성관념에 포로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집단의 힘과 지혜로 깨버리지 못할 기성관념이란 없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상반년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건설을 완공하는데 조직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하나를 통해 열백을 얻는 방법으로 집단주의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든것이다.

룡전기재멸사회주의경쟁이 진행되게 된 사연에 대해 보자.

이런 경쟁은 지난 여러해동안 진행된적이 없었다. 그러나 발전소건설완공을 앞당기는데서 굴착기와 삽차, 화물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이는것이 관건적고리로 나서자 일군들은 이 류다른 경쟁을 조직하였다. 모든 려단에서 대중적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경쟁이 시작된 후 온전사들은 자김자수능력을 전에 없이 높여 만가동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행방법을 널리 받아들이였다. 그러자 지대정리와 굴착, 물동운반속도가 최대로 빨라졌다.

보다 큰 성과는 그 경쟁열의가 집단적경쟁열풍으로 화한것이였다. 자기 단위의 룡전기재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하기 위해 어느 려단에서나 일군들과 대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결국 룡전기재의 범위를 벗어나 려단별로 집단주의의 위력을 겨루는 경쟁이 승벽내기로 벌어졌다. 그 과정에 건설장에서 몇달동안에 해야 할 토량처리를 보름만에 해제끼는것과 같은 비약이 련이어 일어났다.

각 려단일군들사이에 좋은 기술혁신안을 내놓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것도 기적적성과들이 련이어 창조창출되도록 한 류다른 경쟁열풍이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려단일군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오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게 하고 그 견인력에 의해 집단이 비약의 지름길로 폭풍쳐 내달리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경쟁열풍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평안남도려단 정치부장과 평안북도려단 려단장 그리고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려단의 시공을 담당한 분과장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실정에 맞는 휘틀제작설치방도, 혼한막돌로 혼합기설치작업대를 만드는 방법 등을 련속 창안도입하게 되였다. 결과 려단들에서 많은 로력과 철근, 목재를 절약하며 공사속도를 2배로 높이는 등 일대 비약을 일으키게 되였다.

따라앞서고 따라배우자

일군들은 시공공정추진정형에 따라 집단적경쟁열풍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여기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집단적혁신창조의 원동력으로 활용한것이 또 하나의 주목되는 점이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해 공사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언제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해야 할무렵이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전투장에서 설비 및 기공구전시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려단일군들과 대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이 맡겨준 발전소건설과업을 최단기간에 수행할 열의밑에 현장지휘부에서 예견했던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안품들을 내놓았다.

말그대로 자강력을 지위하는 전시회에서 우수한 단위들에 대한 평가사업이 진행되였다. 반면에 부족점이 있는 단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뒤떨어진 단위 일군들과 대원들은 가책되는바가 컸다. 부족점이 있는 설비나 기공구들로 과연 만리마속도창조에 기여할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가책만을 느끼지 않았다. 앞선 단위의 경험을 따라배우고 기어이 따라앞서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니려는 승벽심이 이들로 하여금 집단적혁신창조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리게 하였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이 전시회를 조직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따라앞서고 따라배우자.

이것이 돌격대원모두의 지향이 되고 대비약의 추동력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일군들은 현장의료봉사준비전시회 등도 조직하면서 전시회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그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사업은 분초를 다투는 전투장의 실정에 맞게 앞선 단위의 경험을 신속히 일반화하는데서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나 자력갱생, 자금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정정당당히 비약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발전소건설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려단 등을 맹렬히 추적하는 단위들의 기세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사실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당의 뜻대로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이처럼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을 적극 안받침하고있는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발전소건설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새기적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우리 힘과 기술로 못해낼 일 없다

618세멘트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618건설돌격대의 자력갱생기지들이 만부하의 동음을 울리고있다. 세멘트와 강재, 기와생산기지들…

이 모든 기지들중에서 제일 절실하면서도 선차적인 건설자재보장을 맡고있는것이 618세멘트공장이다.

618건설돌격대에서 올해 한해동안에 방대한 건설을 해야 하는것만큼 공장일군들은 이전보다 년간생산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그 수행을 위해 원료준비로부터 크링카소성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에 만부하를 걸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공장에서는 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세멘트의 질보장문제때문이였다. 시공단위들에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건축공사를 내밀수 있도록 질이 철저히 보장된 세멘트생산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원료의 질부터 높여야 하였다. 광산에서 채취한 석회석중에 품위가 낮은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며 석비레대신 진흙을 충분히 리용하는것이 중요했다.

그러자니 로력이 긴장한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

지배인 방순일동무는 이 문제를 단순히 로력의 긴장성이나 푸는 실무적인것으로 대하지 않았다. 공장은 격렬한 최전방에 탄약을 보내주는 병기창과 같다. 싸우는 고지에 한발의 불발탄도 보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대중과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풀고나갈 방도를 찾았다.

이들은 우선 원료준비공정에서의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였다.

종전에는 한개 직장에서 원료선별과 분쇄, 배합공정들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러다보니 로력리용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결국에는 공정별작업의 질을 높이는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였다.

이 방법을 개선하여 석회석채취와 선별을 전문으로 하는 로력을 따로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여 품위가 높은 석회석채취 및 선별문제를 해결하였다.

진흙보장문제에서 품이 많이 드는 덩어리부스러뜨리는 일도 대중을 불러일으켜 실정에 맞게 풀었다.

이것으로 세멘트의 생산과 질보장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니였다.

소성로의 내화벽돌을 교체해야 할 정황이 조성되였다. 그런데 당장 내화벽돌이 필요한만큼 준비되여있지 못하였다.

그때에도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당황한것이 아니라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었다.

공장에는 지난 시기 수직로에서는 불가능하다던 고강도세멘트생산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낸 훌륭한 경험과 자랑이 있었다.

자기 힘과 기술을 믿고 그에 의거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이들은 공장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불러일으켜 합리적인 로조작방법을 연구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발전소언제건설에 필요한 질좋은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열전대에 의한 과학적인 소성방법으로 세멘트생산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처럼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당면한 세멘트생산목표를 수행하는것은 물론 올해 최고생산기록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위력, 만리마의 기상으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결승선을 향해 앞장에서

평안북도려단 구성시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원동력은 대중의 정신력입니다.》

618건설돌격대 현장지휘부에서는 주타격방향인 고산군민발전소건설을 앞세우면서 올해 목표한 다른 대상건설도 동시에 추진할 작전을 하였다.

이로부터 려단들에서는 발전소건설과 함께 먼저 고산과수종합농장 분장들에 어려동의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게 되였다.

이 건설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여 모두의 시선이 평안북도려단 구성시대대에 집중되였다. 려단앞에 맡겨진 1동의 과학기술보급거점건설과업을 수행하게 된 이 대대에서는 다른 단위에서 한창 벽체쌓기를 할 때 벌써 층막치기에 들어서는 비약을 일으켰던것이다.

사실 이 대대라고 하여 다른 단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은 없었다. 화물자동차와 같은 룡전기재도 없는데다가 로력은 더욱 긴장하였다.

그런데 무슨 힘이 대대가 만리마의 기상을 떨치게 하였는가.

그것은 정신력이였다.

려단으로부터 그 건설과업을 맡았을 때 이곳 일군들은 어깨가 무거웠다.

이 과업을 빨리 수행하여야 려단이 발전소건설을 완공한 후 로력을 집중하여 돼지목장을 비롯한 다음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내미는데 기여할수 있었다.

과연 려단의 기대에 맞게 해낼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대원들속에도 있었다. 그런데다가 지난 기간 일을 잘해온 한 대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쓰면서 일시 대오를 떠나려고까지 하였다.

그때 대대정치지도원 리영희동무는 그에게 이렇게 절절히 말하였다.

《우리는 단순히 려단의 명예가 아니라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관철을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당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우리가 당정책관철을 놓고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열정이 식어가던 대원의 심장이 충정으로 뜨겁게 고동치도록 하였다. 그가 다시금 대오에 선 사실이 대대에 준 충격은 컸다.

이뿐이 아니였다.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대대장 리철근동무가 모진 아픔을 이겨내며 억척같이 대오를 이끄는 모습에서 대원들이 눈부시게 일신시키며 자기것에 대한 귀중함을 뜨겁게 간직하고 자력갱생, 자금자족을 실천의 구호로 들고나갔다. 실례로 그전에는 생산에 필요한 모래를 우에서 보장해주었다면 이때부터는 대형화물자동차와 연유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매달 수십㎥씩 실어들여 리용하였던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왜 우리의것을 창조하지 못하겠는가.

강한 자존심으로 가슴을 끓이며 일군들과 대원들은 그 부분품제작에 달라붙었다. 이전에 못해본 일이지만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니 묘리가 생기였다. 이렇게 고심어린 노력을 바쳐 끝내 부분품제작에 성공하였다.

그때 이들이 그 기쁨과 함께 가슴에 소중히 간직한것은 자기 힘과 기술로 우리의것을 창조한 긍지와 보람이였다.

자력자강으로 열어놓은 증산의 지름길

평양시려단 답배련합기업소대대에서

평양시려단 답배련합기업소대대는 자력갱생기지의 하나인 기와생산기지를 맡아 운영하고있다. 여기서 올해 100여동의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기와를 매달 수만장씩 생산하고있다.

이 성과는 결코 손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생산이 한창이던 어느날에 있은 사실을 보자.

그날 기와직 설비의 어느 한 부분품이 불시에 고장났다. 생산의 동음이 멎은 현장을 돌아보는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전같으면 그 설비의 부분품을 자체로 제작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때 대대정치지도원 임광성동무의 가슴은 더욱 타는듯 하였다. 기와때문에 살림집완공기일이 늦어지게 된다면…

이 생각으로 정신이 번쩍 든 그는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분발해나섰다. 그리고 일군들과 대원들에게 자강력으로 걸어온 나날을 되새겨주며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기지운영을 처음 맡았을 때 먼저 생산 및 생활환경부터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신비한것이란 없다는 신심을 가지고 이들은 여러종에 수십개의 부속품들도 대담하게 자체로 만들어 교체하였다.

이들의 자강력에 도전하듯 더 큰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다.

기와생산설비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속품이 못쓰게 되였던것이다. 그 부속품을 자체로 만들자면 매우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길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다. 죽으나사나 여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신념을 더 굳게 가지고 답배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새 부속품제작의 어려운 길을 걸었다.

실패도 있었다. 그러나 일군들과 대원들은 당정책옹위전을 굽힘없이 벌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그 부속품을 우리 식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결과 적지 않은 로력과 시간, 자금을 절약하고 수십만장의 기와를 더 생산한것과 맞먹는 리득을 얻게 되였다.

이 사실은 자력자강이야말로 증산의 지름길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이 철리를 심장깊이 새기고 일군들과 대원들은 기와생산은 넘려말라고 배심있게 채치면서 색기와까지 자체로 만드는데 달라붙었다. 여기에서 성공하면 살림집지붕에 기와를 올린 후 색을 칠하는 과정에 그것이 파손되여 보충하거나 색갈이 랑비되는 현상을 없앨수 있다.

이처럼 도색작업공정을 줄여 역시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는데서 의의가 큰 사업을 맡아안은 이들은 지금 현장지휘부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색기와시제품을 만든데 이어 다량생산을 위한 설비제작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부강조국의 래일을 위해 바치는 불타는 열정

함흥화학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가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격막법에 의한 가성소다생산공정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생산활성화를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함흥화학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가들의 숨은 노력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설계가들은 설계탁에서 분명국의 래일이 그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격막법에 의한 가성소다생산공정건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기업소의 전투장에서는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전해공정과 증발농축공정건축공사장의 기초구간에 오래전에 시공되여 묻혀있던 많은 구조물들이 나타났던것이다. 만일 이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자면 20여일이라는 시일이 더 걸려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정황앞에서 망설이고있을 때 시공지도를 맡은 함흥화학설계연구소 설계가 최태순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이 구조물을 그대로 리용할수 없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추진되는 조건에서 설계원 한명한명이 두몫, 세몫씩의 일을 맡아하고있었다.

그렇듯 아름찬 일감을 맡고있으면서도 최태순동무는 낮에는 설계를 하고 밤에는 현장로동자들을 만나 지난 시기 있었던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깊이 료해하였다. 때로는 캄캄한 밤에 전지불로 어둠을 밝혀가며 현장조건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는 드디어 낡은 구조물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그우에 새 구조물을 형성할수 있다는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하고야말았다.

이렇게 되여 골조공사는 일정대로 추진되게 되였다.

여러개의 증발기들은 크고 작업온도가 높은것으로 하여 건물의 바닥이 아니라 높은 구조물상부층막에 매달아 설치해야 하였다. 이들에게는 중량이 수십t씩 되는 설비들을 그렇듯 높은 위치에 설치해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량일동무를 비롯한 설계가들은 자기들이 찍는 설계도면의 점 하나, 선 하나에 대화학공업기지의 래일이 비낀다는 자각안고 설계완성에 온갖 정열을 다 바쳐갔다. 며칠후 이들은 다차원설계프로그람을 리용하여 덩지큰 설비들의 하중이 미치게 될 건물의 구조적안정성을 담보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해당한 설계를 완성하고야말았다.

200일전투가 고조를 이루던 지난해 10월 격막전해조를 설계하던 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격막전해조로 말하면 가성소다생산공정의 핵심설비였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을 설계해본 경험도, 충분한 기술자료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도 자력자강의 본때가 비낀 설계를 완성하여 주체조선의 설계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한번 보여주자.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은 변영훈, 김영철, 배성현동무를 비롯한 설계가들은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동작원리 하나만을 가지고 들어선 길이였다. 설계실이 곧 이들의 집이였고 사회주의수호전의 또 하나의 전초선이였다. 박광진, 박승식, 김성원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일군들도 이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실마리들을 힘과 지혜를 합쳐 하나하나 풀어나갔고 때로는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도 가지고나와 설계가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고심어린 연구끝에 이들은 공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전류밀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등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설흔만에 설계를 완성하고야말았다.

어찌 이때뿐이랴. 이들이 짧은 기간에 완성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조업에 필요한 수백대의 산소분리기설치설계도면들에도 부강조국의 래일을 가려가는 원예사라는 긍지를 안고 불사신처럼 싸워온 설계가들과 문헌제작실의 리철형, 구성애, 리옥순, 최춘희동무들의 피타는 노력도 진하게 슴배여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를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설계가들은 오늘도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조국의 행복한 래일을 앞당기기 위해 자신들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양묘장을 특색있게 꾸려놓고

전천군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조건들을 튼튼히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천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체양묘장을 현대적으로 특색있게 꾸리였다.

지난해초,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배인과 양묘직장장 신정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양묘장을 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나무모들은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하는 총탄이고 양묘장은 전시에 무기와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병기창과 같다는 관점을 가지고 양묘장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산림감독분소 분소장들인 하명룡, 강혁철동무들은 대오의 앞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군산림경영소 김경애동무를 비롯한 녀성종업원들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지난 시기보다 나무모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였다.

새로 꾸려진 모체양묘장은 얼핏 보면 흑양소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식물원같기도 하다.

200여㎡의 부지면적에 일떠선 2층건물에는 과학기술보급실과 나무모저장고 등이 있는데 첫눈에도 나무모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양묘장건물이라는것이 알리게 외부가 장식되여있다.

건물의 지하층은 나무모저장고로 리용되는데 백수십만그루의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세일소나무 등의 나무모들을 안전하게 저장할수 있다. 1층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식사칸,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 등이 있다. 더욱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종업원들이 분명한 생활을 할수 있게 모든 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진것이다.

2층에는 청년학교, 연혁소개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여기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학습과 과학기술학습 등을 조직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지열과 태양열을 리용하는 백수십㎥의 나무모온실도 특색이 있다.

나무모온실에는 지하층이 있다. 산림경영소 지배인 라정남동무의 말에 의하면 나무모온실에 지하층이 있으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우선 지하층에서 많은 버섯을 생산하니 좋다.

특색있는것은 지하층의 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지하층과 웃층사이의 층막에는 자그마한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문으로 지하층의 더운 공기가 웃층으로 흘러들고있다. 따라서 태양열만 리용할 때보다 나무모온실의 온도가 2~3℃ 더 높으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모를 키우고있다.

지하층이 있으니 여름철에도 나무모를 키우는데 유리하다. 여름철에는 웃층의 온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지하층의 선선한 공기에 의해 온실웃층의 온도를 낮출수 있어 효과적이다.

나무모생산을 집약화, 과학화할수 있게 된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과 야외재배장도 흠잡을데 없다.

해마다 수십만그루의 참대버드나무, 비타민나무, 뽕나무모 등을 가지삽목의 방법으로 키워내는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들과 영양단지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으로 잣나무, 창성이깔나무모들을 키워내는 야외재배장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양묘장을 이처럼 특색있게 꾸려놓고 나무모생산을 집약화, 과학화하여 고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다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개천시 봉화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적음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충정으로 삶을 빛내이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박사 석영범동무와 연구사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년대기마다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다함없는 충정으로 받들어모시고 당과 수령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천만군민의 일편단심이다.

그 숭고한 넋을 안고 피끓이 깨끗한 량심과 흐림없는 신념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충정다해 모셔가는 과학전사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박사 석영범동무와 연구사들이다.

의무앞에 량심과 의리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가을 어느날 당시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연구사로 일하고있던 석영범동무는 그곳 초급당일군과 마주앉았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비롯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작품조명에 효률적인 등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할것을 결심하고 당조직에 찾아온것이다.

그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였는가고 초급당일군이 묻자 석영범동무는 잊지 못할 나날을 추억하였다.

1995년 9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개천시의 어느 한 지방산업공장에서 연구사업에 열중하던 석영범동무는 밤이 퍼 깊어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하고있는 연구사업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높은 자각이 그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여 이제는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되였다. 그의 발걸음은 지도모르게 시내중심에 모셔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으로 향하였다.

그곳으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찾는 사람들이 그칠새 없었다.

그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는 석영범동무에게로 관리원이 다가왔다. 관리원의 입에서 무지중 이런 말이 나왔다.

《조명이 더 밝았으면. …그러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이 더 환하게 안겨올텐데…》

순간 석영범동무는 가슴이 쿵— 하고 울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마음속에 큰 충격을 안고 공장으로 돌아와서도 관리원이 하던 말이 뇌리에서 떠날줄 몰랐다. 공장에서 연구사업을 끝내고 연구소로 돌아온 후에도 그의 머리속에서는 내내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가 연구완성한 발명품 《비정상전원으로부터 전동기보호장치》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발명품이 제25차 제네바국제발명, 새 기술 및 새 제품전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아 동지들이 축하해줄 때에도 석영범동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은 누구에게도 내비친적 없는 하나의 결심이 굳어지고있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숭엄한 마음을 안고 우러렀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다 바칠 신념이 이미 굳게 뿌리내렸다.

그의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전자응용회로가 전공인 그에게 있어서 조명공학은 생소한 분야였다. 그러나 물러설수 없었다. …

《조선의 과학자로서 한생을 바쳐서라도 이 연구사업을 할 결심입니다.》

초급당일군은 석영범동무의 두손을 꼭 잡아주었다.

《훌륭한 결심이요. 이 땅에 생을 준 당의 과학전사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오.》

석영범동무는 국내의 과학기술잡지들과 특허자료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생각이 깊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동상에 대한 조명이란 말조차 없었고 더우기 국내기술자료들도 매우 빈약하였다.

그는 당시 조명과 관련한 문헌자료와 기술자료들중에서 다른 나라의 가장 앞선 반사경설계방법을 두고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발광소자를 리용한 반사경을 설계하고 반사경형태를 제작한데 이어 시험사출 및 증착을 진행하여 전력소비량 밝음도를 측정하고 실험분석을 하였다. 그가 2006년 12월까지 진행한 측정 및 실험분석은 200여차에 달하였다. 하지만 종전에 비하여 60~70%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을 정도로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는 점점 맥이 풀리는것을 느끼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동요의 회오리가 일었다.

(내가 정말 해낼수 있는 일에 집어들었는가. 이제라도…)

그러는데 문이 열리더니 당시 초급당일군이였던 오학동무가 들어섰다. 책을 한아름 옆구리에 낀채 연구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지으기 초췌있었다. 석영범동무는 그를 차마 마주볼수 없었다.

초급당일군의 준절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구만. 차광수동지가 최후에 이런 말을 동지들에게 남겼지. 〈조선의 혁명가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위대한 동지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충실해야 하오. 그 충실성은 의무이기전에 영예여야 하며 량심이여야 하며 창조여야 하며 정열이여야 하오. 즉 생의 가장 귀중한것으로 심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이요.〉》

석영범동무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한 과학자의 결심과 각오를 걸음걸음 믿어주고 지켜주는 고마운 당조직의 손길을 그는 심장이 뿌듯하도록 절감하면서 다시금 용기백배 일떠섰다.

석영범동무는 거듭되는 실험을 통하여 종전의 방법으로는 발광소자의 빛을 전부 집초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는 사색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2007년 2월 석영범동무는 발광소자의 빛묶음을 전부 집초시킬수 있는 반사경곡면계산방법을 드디여 착상하게 되었다. 즉시 반사경곡면설계를 하고 반사경형태를 설계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종전의 반사경에 비해 조명효률이 100배이상 높다는것을 확정할수 있게 되였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던 끝에 그는 드디여 효률높은 반사경에 의한 레드조명등을 개발하게 되였다.

성공을 축하해주는 일군들에게 석영범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곧 회명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수많은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체계가 확립되였다.

그날 석영범동무는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경건히 우러렀다.

《김정숙어머님, 어머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대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백옥같은 충정으로 높이 모시는 충직한 전사가 되겠습니다.》

그 뜨거운 맹세를 가슴에 품고 석영범동무와 연구사들은 전국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동상에 새로운 조명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였다.

믿음—그것은 충정과 열정의 원천

2008년 여름 어느날 석영범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숭엄하게 모시는 사업에서 조명설비들과 조명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에 접하게 되였다.

석영범동무의 가슴은 무한한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곧 석영범동무와 연구사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믿음이였고 지상의 명령이였다.

석영범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연구사들과 함께 청진과 사리원, 강계, 함흥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모셔져있는 어버이수령님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동상에 대한 조명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새로운 조명체계도입을 위한 설계제작과 함께 도입을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먼 출장길에서 돌아와서도 휴식도 끼니도 미루어가며 조명체계제작을 위한 전투장으로 향하군 하였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우리곁을 떠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가슴을 에이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떠날념을 못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는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연구사들과 함께 조명체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밀쳐나갔다.

석영범동무가 과학자로서 한생 잊지 못할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계기가 있었다.

못 잊을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명제비를 돌아보시며 과학자, 기술자대군을 키우시여 당의 두리에 성벽처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정중히 모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늘 대원수님들을 뵈옵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으며 사업하고 생활하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에 들리시여서는 전시관에 전시된 레드등조명체계를 보시면서 전국에 모셔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도입한 정형을 료해하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대한 조명을 더 잘하여 수령님들의 동상을 언제나 밝고 정중하게 모실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석영범동무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가다듬었다.

세해전 봄 세상에 불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을 때였다.

석영범동무는 한없는 그리움에 잠겨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렀다. 해당화가 붉게 핀 바다가야영소의 공원의자에 앉으시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친어버이의 정을 부어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볼수록 가슴이 뜨거워났다.

얼마후 그가 연구사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대한 조명체계를 도입하는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였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함께 갔던 연구사 김정력동무의 말이였다. 그때 건강이 악화되였던 석영범동무의 아버지는 먼길을 떠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기때문에 잔근심을 하면 안된다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 돌아와야 자기 병도 낫는다고 간곡히 당부했었다.

미소를 지은채 연구사가 돌아다보니 석영범동무는 뜻밖에도 《비침도, 색은도…》라는 말을 되뇌이고있었다. 김정력동무는 석영범동무의 생각이 지금 야영소에 가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석영범동무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내가 한 일에 정말 빈틈이 없는가?)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차를 돌립시다. 야영소에 다시 가야 할것 같소.》

이렇게 야영소로 돌아선 석영범동무는 저녁이 오기를 기다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대한 조명상태를 다시금 세세히 료해하였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미세한 그늘이 비낀것을 발견하였다.

(내가 과연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대로 일하고있는가.)

그는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방도를 모색하던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원인은 종전의 방법그대로 조명체계를 배치한데 있었다.

조명등을 옮겨 각도를 변화시킨다면…

얼마후 조명등배치를 위한 자리를 확정하고난 그는 조명등을 정히 닦으며 마음속으로 희망에서 다진 그날의 맹세를 되새겨보았다.

석영범동무는 연구사들과 함께 조명등을 종전의 위치에서 옮기고 2대를 더 보충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런 다음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다시금 우러렀다. 동상에는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았다.

함께 있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동상을 향하여 줄기차게 흐르는 빛, 거기에 석영범동무의 다함없는 충정이 어린 온넋이 비껴흐르고있음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수 있었다. 일군들이 그에게 다가와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자 석영범동무는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아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고결한 충정을 닮자면 멀고멀었습니다.》

그후 석영범동무는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먼거리에서도 수정조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조명등을 연구해내게 되였다. 이렇게 태어난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극집초형레드두광등이였다.

석영범동무는 분발하였다.

지난해 9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대한 조명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석영범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대한 조명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긴장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이윽고 맡은 일을 다 끝낸 석영범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삼가 우러렀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고귀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한몸 다 바쳐 받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그를 이윽토록 바라보는 한 일군이 있었다. 혁명사적지도국 처장 최성철동무였다. 그는 미더운 눈길로 석영범동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10년전 희명시에 높이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 서있던 그날의 석영범동무의 모습을 보고있었다. 그날의 그 자세로 10년세월이 흘렀다. 그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 과학전사로서의 흐림없는 신념을 지닌 한 연구사의 됨됨에 대하여 한두번만 느끼지 않은 그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은 그는 참으로 행복한 과학자였다.

박사의 학위, 2014년 최우수발명가,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수상자의 영예…

《십장동무와 함께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롭구만. 내 머리가 다 숙어지오.》

석영범동무는 그의 말에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조직의 믿음과 방조가 없었더라면…그리고 제 길엔 언제나 오랜 세월 기쁨도 피로움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고비들을 웃으며 넘은 귀중한 혁명동지들이 있었습니다. …》

그는 함께 일해온 연구사, 기술자들의 미더운 얼굴을 머리속에 떠올렸다.

김정력, 백정룡, 렴호복, 서해영…

지난해 《보조반사경을 가진 레드두광등》을 연구한 석영범동무를 비롯한 발명가들에게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보내여온 발명가메달과 증서가 수여되였다.

석영범동무와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명공학의 첨단분야를 돌파할 야심만만한 배심을 안고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티없이 깨끗한 량심과 흐림없는 신념으로 자기의 초소를 지켜가는 이런 미더운 과학전사들이 있기에 위대한 우리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을 이룬 우리의 사회주의진지가 그리도 굳건한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현경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6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최장홍학생 국제피아노콩클에서 특등 쟁취

우리 나라의 최장홍학생이 로씨야에서 열린 제2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에서 특등을 쟁취하였다.

나이에 따라 2개 부류로 나뉘여 진행된 콩클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벨라루씨, 중국, 일본, 카나다 등 20여개 나라의 전도유망한 청소년피아노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1부류 최종단계경연에서 최장홍학생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마음껏 꽃피워온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세계명곡들을 세련된 연주기법과 섬세한 음악적감정으로 손색없이 형상함으로써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콩클조직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연주기교를 보여준 최장홍학생에게 특등상을, 김재실교원에게 최우수교원상장을 수여하였다.

경상유치원시절에 피아노연주를 잘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으며 제20차 국제청소년쇼뽕피아노경연에서 경연력사상 가장 나이어린 1등상수상자로 명성떨친 최장홍학생은 이번 콩클에서도 첫 출연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능란하고 재치있는 연주가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일어서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심사성원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속에서 자라난 피아노신동의 전도양양한 모습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학생의 연주가 제일이다, 매혹적인 연주를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주체예술의 창창한 앞날에 대하여 저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악보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개성과 감정을 원만히 발휘한 최장홍학생의 뛰여난 연주는 조선의 높은 음악교육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시상식장에서 최장홍학생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여 정말 행복하다.》고 긍지높이 말하여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리아 노보스찌, 《로씨스까야 가제따》를 비롯한 로씨야의 통신, 신문들은 최장홍학생의 연주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나어린 최장홍학생이 국제무대에서 또다시 이룩한 성과는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새 세대들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는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국제피아노콩클에서 특등을 쟁취한 최장홍학생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의 교원, 학생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신건강문제를 올해의 주제로 정하고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며 인류의 건강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정신기능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위생선전, 예방치료,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정신건강관리와 우울증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문수기능회복원을 참관하였다.

한편 이날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집중위생선전이 각 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였다.

《광명한 미래를 향해나가는 주체적산업미술》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신 금수산태양궁전 전면장식도안과 려객뻐스, 류경김치공장, 평양륙산공장 제품상표도안 등 2 400여점의 도안들이 출품되였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중앙산업미술지도국, 만수대창작사, 각 도산업미술창작사,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단위들, 공장, 기업소, 교육부문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1 50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제품들, 모형, 사진, 동영상자료들도 전시되였다.

각종 신발들, 학생가방들, 민들레학습장, 경질그릇을 비롯한 전시품들과 식료품포장도안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꽃피우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개막식이 6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창작가,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주오내각부총리가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으로 현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매 시기 제기되는 수많은 산업미술도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산업미술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과업,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애국의 마음안고 인민들이 좋아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도안들을 수많이 창작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미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녀낮은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숭고한 조국애와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조선영화감상모임 진행

태양절경축 조선영화감상모임이 6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되였다.

영화감상모임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김인범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첫 대학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보살피심속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김일성종합대학 제1기 졸업생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한 조선예술영화 《졸업증》을 감상하였다.

제28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 선수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제28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할 르완다, 마르끄, 케냐,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선수들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국가선물관 참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6일 국가선물관을 참관하였다.

선물관의 총서관에 들어선 그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림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국가선물관이 위인칭송의 대보물고, 태양민족의 만년재보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 남조선인민들이 올린 선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알렉싼드르 마페고라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는 선물관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자기의 수령들을 모시고 받드는 조선인민의 진실한 마음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썼다.

애모스 엘리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는 선물들마다에는 자기 령도자들을 끝없이 흠모하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반영되여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어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썼다.

땀담 쓸레이만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김정은원수각하께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선물관을 참관하면서 특출한 령도실력을 지니신 주석각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았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전시된 선물들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 김정은원수각하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보여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김용대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적립장

6.15의 기치밑에 분렬과 대결의 시대를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이다.

오늘도 우리 민족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임을 온 세상에 떳떳이 과시하였던 6.15통일시대의 격정과 환희를 잊지 않고있다.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지맥이 이어지고 꽉 얼려진 하늘길, 땅길, 배길을 따라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이 서로 오가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행사들을 벌려 통일열풍을 일으키던 그때 북남관계는 그야말로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활력있게 전진하였으며 온 겨레는 바야흐로 다가올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았다.

참으로 6.15통일시대의 감격적인 나날은 민족이 외세를 이기고 애국이 매국을 이기며 통일이 분렬을 이긴 잊지 못할 환희의 나날이였다.

하지만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그 소중한 성과들은 지금 반통일세력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상태에 있다.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독을 쓰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폐쇄되였다.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고 전쟁의 한과가 밀려드는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험에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악화일로를 치닫는 북남관계를 돌려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성의있는 노력과 진정어린 제안들을 외면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 피뢰패당에게 있다.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암살책동에 앞장선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준동으로 정세가 엄혹하고 복잡한 속에서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진정어린 제안들을 거듭 내놓고 실천적조치들을 따라세우면서 선의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하지만 민족반역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업으로 삼아온 피뢰패당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위장평화공세》, 《진정성없는 대화제의》로 마구 헐뜯으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공조에 미쳐돌아갔다. 피뢰들의 류례없는 동족대결망동으로 하여 북남관계의 기초는 완전히 허물어졌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버섯구름이 치솟을지 모를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6.15통일시대의 환희롭던 어제와 그와는 정반대인 오늘의 북남관계는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면 우리 민족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며 통일에로 나아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행과 재앙을 피할수 없고 나중에는 전쟁의 재난까지 들쓰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6.15통일시대를 한갖 력사의 추억으로만 되새길수 없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안고 자주통일의지를 다시한번 총분출시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시대의 흐름과 겨레의 지향에 맞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북남관계파국의 주되는 근원인 피뢰보수당국의 반통일대결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불신과 반목을 빚어내는 역적패당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둔다면 북남관계는 절대로 개선될수 없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자면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암살책동에 미쳐날뛰는 피뢰역적패당을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해버려야 한다.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한줌도 안되는 극악한 친미보수패당에 의해 짓밟히는 비극적현실을 절대로 지속시킬수 없다.

북과 남의 인민들은 통일조국의 한지붕밑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한겨레, 한동포이다. 통일의 길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시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한다면 함께 손잡고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들을 되살리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지금 남조선피뢰들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요구에 한사코 등을 돌려대고 박근혜역도의 대결정책을 고수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자들은 마치도 북남관계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때문에 악화된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저들의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동족압살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파렴치한 망동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는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안정의 실질적담보이다.

강한 군력을 키우지 못한 민족은 어차피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히기마련이다.

그처럼 자주정신이 강하고 애국심이 높은 우리 민족이 100여년전 일제에게 망국조약의 체결을 강요당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통채로 빼앗겼던것은 자주권을 수호할 강력한 총대가 없었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말이나 호소, 다른 나라의 《보호》나 국제사회의 동정이 아니라 오로지 자체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지킬수 있다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참된 평화도 총대우에 있다.

백두산혁명강군이 틀어쥔 주체의 핵보검은 철두철미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자기자신을 지키고 민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우리가 죽제의 핵을 내려칠수 있는 정의의 핵마치를 억세게 틀어쥐었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열점지대인 조선반도에서 오늘까지 평화가 유지되고있다.

봉건의 수레가 삐걱거리던 세기적락후의 질곡속에 초라한 화승총조차 변변히 없어 대포와 기관총을 쏘며 달려드는 일제아수들에게 끝내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 혈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전락되였던 어제날의 약소국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천지개벽에 내외가 경탄하고있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야말로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재부이다.

그런데도 피뢰보수패당은 그 무슨 《핵불용》이니, 《북핵폐기》니 하고 미친듯이 악담질을 해대며 동족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고 북남관계파국을 지속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

하지만 피뢰들이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는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의 정당성을 짓아내릴수 없으며 북남관계파괴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려올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해줄수 없다.

온 겨레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한결같이 떨쳐나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기어이 펼쳐놓아야 할것이다.

허 영 민

온 민족이 단합하여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3월 31일 《온 민족이 단합하여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돐과 10.4선언발표 1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조국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가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조국땅에서 군사적충돌과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전민족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며 자주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여는데 보람있게 이바지할데 대한 호소문을 보내였다고 지적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이 호소문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나갈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애국애족의 열렬한 호소로 인정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성명은 격찬하였다.

성명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기본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반목대결을 중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전쟁연습과 극악한 반목과 대결책동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속에서 신의있는 대화를 생각할수 없고 관계개선은 더구나 있을수도 없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할 때 동족에게 차례질것은 전쟁뿐이며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누구든지 민족의 한성원이라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는데 총궐기해나서야 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녘민중이 단합된 힘으로 친미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민적인 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고 밝혔다.

자주와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대중의 활동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며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 어깨걸고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들이 중국의 각 지역들에서 《전민족대회 지지실천! 통일기 펄서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체 조선동포들의 통일열의를 고무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성사시켜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 특색있게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끊임없이 폭로되는 천하악녀의 죄악

천하악녀인 박근혜역도의 죄악은 실로 끝이 없다. 지난 3월 10일 피뢰헌법재판소가 역도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들에 의해 년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피뢰검찰의 수사과정에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벌기업들과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도 특별사면과 세무조사무마 등 각종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실이 폭로되였다.

박근혜역도는 기업들로부터 뇌물만 받아먹은것이 아니였다. 박근혜역도가 청와대를 통해 남조선 《기업련합회》(이전 《전국경제인련합회》)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위협공갈한 결과 이 단체가 하는수없이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3년동안 《어버이련합》과 《엄마부대》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에 600여만US$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였다. 《어버이련합》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이 박근혜역도의 반역정책을 지지하고 진보민주세력을 공격하는 불순한 집회들을 계속 벌린것은 바로 역도가 남조선 《기업련합회》를 통해 먼저주는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였다. 보다싶이 박근혜역도는 기업들로부터 비법적으로 숱한 돈을 긁어내여 그것을 게년의 몸값을 올리고 극우보수단체들의 친 《정부》활동을 지원하는데 써먹었다. 박근혜역도가 청와대에서 쫓겨나면 돈줄이 잘릴가봐 탄핵반대집회를 벌리며 온갖 망동을 부린 극우보수떨거지들의 발악적추태에 남조선인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또한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최순실에게 숱한 비밀자료들을 넘겨준 사실자료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에 의하면 박근혜역도가 넘겨준 119건의 비밀자료들가운데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자료를 비롯한 국비문건들은 30여건에 달한다. 박근혜역도의 친인척들과 측근들의 부정부패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동향보고서까지도 최순실의 손에 체계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박근혜역도가 입버릇처럼 외워대던 《통일대박》이라는것도 최순실의 각본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립증되였다. 얼마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통일대박》론은 최순실이 고안해낸 《제재통일》각본이며 박근혜가 《통일》이후 《대통령》을 한번 더 해먹으려는 망상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인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끝없이 폭로되고있는 박근혜의 각종 범죄행위들은 력사의 죄인으로서의 피뢰역도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사건은 단순히 피뢰역도를 구속하여 족쇄나 채우는것으로 마무리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역도의 죄악은 두고두고 력사의 교훈이 되게 가장 준엄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여야 할 특대형범죄이다.

더우기 역도가 사이비무당의 점지에 따라 그 무슨 《통일대박》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며 《제재통일》야망을 실현한 다음 《대통령》자리를 또다시 차지하려고 날뛴것은 년이야말로 권력욕에 환장한 사악한 민족반역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얼마전 검찰조사에서 뻔뻔스럽게 《무죄》를 운운하였다. 지어 역도는 구속전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끌려나오면서 도전적인 웃차림을 함으로써 자기의 특대형죄악을 전면부정하는 자세를 또다시 드러냈다. 이것은 세기적악녀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으로서 피뢰역도를 그 어떤 동정도 자비심도 없이 단호하게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박근혜역도의 범죄사실이 계속 밝혀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의 구속은 당연하다.》, 《범죄혐의를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감이다.》라고 하면서 역도년을 당장 처형하라고 들고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수치이며 만고역적인 박근혜역도와 그 패당을 가차없이 징벌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투쟁의 초불을 더욱 높이 들고나갈 의지에 넘쳐있다.

김 철 남

재집권을 노린 간상배들의 비렬한 야합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1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사격장에서 미군직승기가 쏘아댄 기관포탄이 주변목장에 날아들어 소동이 일어났다.

이로 하여 목장에서 일하고있던 2명의 주민이 생명을 심히 위협당하였다 한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언제나 커다란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기도 포천에서 미제침략군의 포탄발사로 소동

남조선에서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들이 《새 정치》니, 《새로운 보수》니 하는 간판을 내걸고 민심을 기만하며 재집권흉계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이런 속에 한구유통을 쓰다가 불로 갈라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이 보수세력의 후보단일화와 지어 그 무슨 제3지대세력까지 포괄하는 후보단일화를 기도하는 움직임을 보여 남조선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3월말 《자유한국당》은 경상남도 지사인 홍준표를 자기 당의 《대통령》선거후보로 공식 지명하였다. 홍준표는 《대통령》선거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보수세력의 후보단일화문제를 거론하며 《바른정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원래 같은 당인데 후보가 둘일 필요가 있는가, 조건없이 돌아오라고 하면서 《바른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인 류승민에게 후보단일화를 요구하였다.

형식상으로는 홍준표가 《대통령》선거후보로 정식 선출된 후 류승민에게 후보단일화를 제기한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자들은 이미전부터 이번 선거에서 야당후보와 겨루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선거련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금 홍준표와 류승민은 저들끼리는 물론 제3지대후보와도 손을 잡을 의향을 내비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세력을 비롯하여 일부 야당인사들에게 추파를 던지고있다. 며칠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것들이 《국민의 당》의 《대통령》선거후보에게 약속이나 한듯이 《선의의 경쟁》이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떤것은 그 한 실례이다.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함께 민심의 버림을 받고 독자적인 집권이 불가능해진 피뢰보수패거리들이 재집권을 위한 최후발악으로 마구잡이식의 세력권확장에 나선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이 조기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것과 관련하여 후보단일화놀음에 팔걷고나서고있는것은 권력욕에 환장한 정치간상배들의 비렬한 야합으로서 인민들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과멸의 운명에 처한 박근혜잔당들이 더러운 명줄을 부지하고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원래 피뢰보수패거리들은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한집안에서도 피터지는 계파싸움을 일삼는 추악한 시정배, 인간쓰레기들이다.

지난 17대 피뢰대통령선거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후보선출과정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때 이 반역당에서는 《대통령》후보자리를 놓고 리명박역도와 박근혜역도가 서로 물고뜯으며 역겨운 개싸움질을 벌렸다. 그로 인한 《한나라당》의 내부갈등은 수년간이나 계속되였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친박계와 비박계의 세력권쟁탈전도 계파의 리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물고뜯으며 대립하는 보수정패들의 추악성을 날날이 폭로해주었다.

저들이 보수를 대표한다고 고아대면서 상대방을 마구 헐뜯고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앙앙불락하면서 개싸움질에 눈이 벌개 돌아치던 보수떨거지들이 언제 그랬던가 싶게 억지미소를 지으며 《련대》니, 《통합》이니, 《단일화》니 하고 어색한 연극을 놀아대고있는것은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피뢰보수패당이 아무리 《새 정치》, 《새로운 보수》를 운운해도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공범자,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 《적폐청산대상》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몰골을 가리울수 없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현실적으로 홍준표는 박근혜의 졸개가 되여 역도년의 반역정치를 앞장에서 실행하기에 미쳐돌아간자이다. 류승민도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역도가 《대통령》감두를 쓰는데서 모사역할을 하였다. 지금 이자들이 그 무슨 후보단일화에 대해 운운하고있는것은 그 어떤 정책련대도 아니며 화해를 위한것도 아니다. 단지 《대통령》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벌리고있는 불순한 흥정판, 더러운 정치적야합일뿐이다.

이런자들이 지금 보수《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초불민심에 도전하여 재집권기도를 실현하려고 발광하는것은 반역무리를 징벌하고 민주사회를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민심에 역행하며 보수의 재집결, 재집권을 꾀하는 피뢰보수패당의 교활한 술책을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박근혜탄핵투쟁이 진정한 승리로 결속되기 위해서는 과쓰독재와 친미사대, 동족대결에 광분해온 피뢰보수패당의 재집권야욕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은 가증스러운 박근혜잔당들을 끝까지 청산하고 진보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초불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애국의 한마음으로 산림보호사업에 떨쳐나

면밀하게 짜고든 감시 및 군중동원체계

맹 산 군 에 서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맹산군에서 보다 면밀한 산불감시 및 군중동원체계를 세워 귀중한 산림자원을 더 잘 보호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군에는 소나무, 이깔나무, 참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숲을 이룬 산들이 적지 않다. 더우기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근년간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내민 결과 산림자원이 또다시 늘어날수 있게 되였다. 그에 맞게 군에서는 산불방지를 산림보호사업의 중심고리로 정하고 농촌리마다 6개씩의 산불감시초소를 건개하였다. 그리고 매 초소들에 배치된 성원들이 산불감시초소에서 미처 말전하지 못할수도 있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런 속에 한명의 감시원이 대체로 몇정보의 산림을 감시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타산해보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면적은 대체로 20~50정보정도였다. 결국 골짜기들이 많고 령길들이 있는 산림지역들에는 감시초소를 더 늘이는것과 함께 매 초소들에 2~3명정도의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얻어졌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온포, 대흥, 정지, 신상지구를 비롯하여 산불위험성이 많은 여러 지역들에 감시초소를 더 내오고 감시성원들을 보충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중정치사업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들도 산불감시와 통보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군일군들의 조직사업은 어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은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그것을 제때에 련락할수 있도록 모든 감시원들에게 필요한 기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또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제절적으로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3~5월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입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산불감시와 관련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이룩할수 있었다.

이룩한 승리는 더 큰 승리를 위한 밑천이며 도약대이다.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인 군일군들은 군중동원체계를 보다 치밀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산불이 나면 오래동안 애써 조성한 산림자원이 순간에 재더미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하여 일단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넓은 지역으로 번져지지 못하도록 제때에 끄는것은 산불방지태책을 세우는 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자면 빠른 시간에 인원과 기재가 해당 지역에 도착해야 한다. 결국 시간을 얼마나 빨리 쟁취하는가에 따라 산불진압작전의 승패가 좌우된다. 이것을 예민하게 포착한 군일군들은 이미 조직된 방화대에 백수십명의 로력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사업, 필요한 륜전기재들을 임의의 시각에 동원시킬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 등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간 군일군들은 외진 곳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를 예견한 조직사업도 놓치지 않고 짜고들었다.

결과 산불발생지역으로 그 주변의 인원과 기재들을 신속히 전개하는것과 동시에 군적인 력량을 빠른 시간안에 도착시켜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되였다.

산림복구전투가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오늘날 산불방지태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산림조성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단 한그루의 나무도 산불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다 정연한 감시 및 군중동원체계를 세워나간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가 돋보인다.

본사기자 김 성 일

산림보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우리 나라에서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은 계절적으로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다.

즉 봄철은 산림보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산불을 일으킬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장악하여 사전에 없애야 한다.

누구나 입산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과 함께 림농복합경영지들에서 함부로 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력선들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보수사업, 고압선철탑과 전주대들에 감겨올라간 덩굴식물들의 줄기와 전기줄가까이에 있는 나무가지들의 자르기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사소한 산불발생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산불이 일어날수 있는 모든 위험개소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감시를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

산불차단대책 특히 산불막이선을 잘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산불막이선은 대체로 큰 바늘잎나무숲이나 철길옆 등에 일정한 폭으로 나무들을 찍어내고 흙을 파헤쳐놓는 방법으로 만들되 산길, 산릉선, 산골짜기, 개울 등 나무가 극히 적거나 민 자리와 련결하여 만드는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산불막이투쟁을 군중적으로

◇ 온 나라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와 산림보호사업으로 들끓고있다.

최근년간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무심기가 활발히 벌어져 나라의 산림자원이 늘어나고 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있다. 덕천시, 연탄군, 벽동군, 무창군, 법동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이 산림조성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 단위들에서는 산림조성사업과 동시에 산림보호사업 특히 산불막이를 잘하여 심은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하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앞서나가고있는 군들은 하나같이 산불피해를 막는 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는 단위들이다.

현실은 산림조성사업과 함께 애써 심은 나무들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 산불은 산림복구전투의 주되는 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함께 산림보호관리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일단 산불이 일어나면 애써 조성한 산림자원이 순식간에 재더미로 변하게 되며 수십년동안 키워온 많은 거목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산림자원이 줄어들고 인민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는것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산불이 나면 그 후과를 가시는데 숱한 품이 들고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구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게 된다.

더우기 산불을 막기 위한 투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구호문헌들을 보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인것으로 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은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이며 구호문헌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실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산불이야말로 산림복구전투의 주되는 적인것만큼 산불을 예견성있게 막는것과 함께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려야 한다.

◇ 산불을 막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산불을 막기 위한 사업은 어느 한두사람의 힘, 해당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제 살점처럼 여겨야 하며 산불이 나는것을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각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산불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사상교양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 특히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구호문헌들이 있는 지역들에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우선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산불위험요소와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산림감독원, 산림순시원들과 산불감시원들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이미 세워진 감시 및 통보, 군중동원체계가 큰 온을 내게 하여 산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흙구이 등 여러가지 작업으로 사소한 산불위험요소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산불막이선들이 제대로 되여있는가를 다시한번 알아보고 정리하는것은 물론 새로 만들것은 만들며 산림지역안의 전기선들도 정리하여야 한다.

나무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 말화물질을 가지고가지 말아야 하며 대용연료를 쓰는 륜전기재들의 정비를 잘하여 불씨가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들에서 학생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산불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방화력량과 기재들이 해당 지역으로 임의의 시간에 즉시 가닿을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누구나 산림보호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조국의 재부를 늘여나가는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우리의 선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압박과 도발책동의 도수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서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하무도한 행위들이 끼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가운데 《수뇌부제거》를 노린 《특수작전》이 공공연히 실전단계에서 준비되고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핵공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우리의 문전에서 벌려놓고있으며 《방어적》이라고 하던 기만적인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졌다.

뿐만아니라 최악의 경제봉쇄와 《제재》로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책동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조선반도정세는 오늘에 와서 더이상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튀는 경우 전쟁발발의 책임과 전후처리문제가 제기되게 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반도정세를 열핵전쟁의 폭발상태에 처하게 한 미국의 책임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십차례 경고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도발자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서도 명백히 하였다.

—《부쉬행정부출현이후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여 우리 제도를 거부한다는것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연히 핵선전포고까지 하였다. 》(2003년 1월 10일 정부 성명)

—《미국은 우리에게 《마약밀매》, 《화폐위조》, 《종교탄압》, 《망명자발생》, 《인신매매》, 《콤퓨터해커양성》, 《무기밀매》 등 별의별것을 다 가져다 억지로 걸부시키면서 우리 제도의 영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유치하고 비렬한 모략선전에 매여달리고있다.

동시에 우리의 무역선박들에 온갖 구실을 붙여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해상봉쇄에 맞먹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보자기를 어떻게 씌우는 관계없이 그 성격에 있어서 정전협정파기행위이고 선전포고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행위나 다름바 없다. 》(2003년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성명)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저들의 주장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록정》국가로 매도하면서 《선제공격》으로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는것은 한마디로 부쉬정권이 핵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고 《테로방지》를 위해서도 전쟁을 하며 《민주주의확산》을 위해서도 전쟁을 하겠다는것으로서 저들의 리념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례외없이 적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들을 전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것을 밝힌 강도적인 선전포고문건이다. 》(2006년 3월 21일 외무성 대변인대답)

—《미국은 최근 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채택으로 우리에게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망상밑에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봉쇄를 국제화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현재 부쉬행정부는 저들이 정한 시한부내에 우리가 굴복해나오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을 국제정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또다시 악랄한 반공화국제재봉쇄《결의》를 통과시켰다. …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2006년 10월 17일 외무성 대변인성명)

—《6월 12일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

—《인권은 곧 자주권이며 해당 나라의 국권이다.

따라서 우리의 참다운 인권에 대한 강도적인 《결의》는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된다. 》(2014년 11월 23일 국방위원회 성명)

—《오바마행정부 역시 2010년 4월 우리를 핵불사용대상국명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중단없이 공언하고있다.

미국은 해마다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핵공격을 실천적으로 준비하여왔다. …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성과 위험성은 미국이 종전의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찢어버리고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타격수단들에 대한 《족집게식타격》을 실천에서 검토하는가 하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까지 벌려놓는 등 무모한 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는데 있다.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내놓고 떠들며 날뛰는 미치광이같은 도전을 용인할 나라나 정부는 이 세상에 없다. 》(2016년 3월 31일 외무성 대변인담화)

—《더우기 엄중한것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는 천하무도한 《참수작전》과 집무실파괴를 목적으로 한 《정밀타격훈련》, 《정양진격작전》 등 각이한 명칭의 공격작전들이 극도로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된것이다.

이번 전쟁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미국의 기도와 책동이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 최대의 적대행위이다.

미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침략과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된다. 》(2016년 4월 30일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을 다바쳐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시며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의 전부이시다.

미국이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우리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선것은 《인권문제》를 들리씌운 테럽을 초월한 최악의 적대행위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된다. …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할퀴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하는것으로써 우리와의 대결에서 《붉은선》을 넘어선 이상 우리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권리를 정정당당히 보유하게 되였다. 》(2016년 7월 7일 외무성 성명)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성된 정세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극단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특대형도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특수작전》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립장을 포고한다. …

2. 우리를 노린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에 투입된 미국과 괴뢰들의 작전수단들과 병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여있는 한 임의의 시각에 사전경고없이 우리 군대의 섬멸적타격이 가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

3. 일단 우리에 대한 《특수작전》, 《선제타격》이 개시된다면 그것은 곧 미제국주의의 비참한 멸망과 남조선괴뢰들의 최후멸망을 고하는 력사적사변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2017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경고)

우리의 엄숙한 경고는 미국의 개별적인 행정부들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보다 집중적으로 강도높게 감행하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도발적인 망발들이 미국내에서 끼리낌없이 튀여나오고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에 의위오면 기만적인 《방어》의 간판마저 완전히 집어던지고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 《B-1B》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최악의 기습핵선제타격위협을 가해오고있다.

뿐만아니라 《데브그루》(일명 《네이비 씰》 6팀)와 합동특수전사령부소속 《델타 포스》를 비롯한 악명높은 특수전부력을 끌어들여 《수뇌부제거》를 위한 《참수작전》과 핵, 로케트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대해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미국은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 리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강요하는 한편 우리의 생존권, 발전권을 기어코 말살하기 위한 단독제재놀음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으며 지난 3월 29일 하루동안에만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결의》를 3건이나 채택하는것과 같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의 해위협공갈과 제재봉쇄책동이 어느 하루 그친적이 없지만 지금처럼 광란적으로 벌어진적은 일찌기 없으며 이것은 벌써 적대행위의 단계를 넘어 전면전쟁을 의미하는것으로 되고있다.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책동이 전례없이 횡포무도하게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는 엄중한 전쟁상황에 놓이게 되였으며 우리는 부득불 최대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에 거듭하여 보낸 경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2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극악한 압살책동은 보편적인 국제법규범들에 준하여 볼 때 명백한 전쟁행위, 전쟁범죄로 된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1954년 6월 3일~7월 28일 유엔국제법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채택)에는 한 나라 당국이 감행하는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의 준비를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였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는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독립을 반대하며 혹은 국제법과 질서를 랑렬질수 없는 기타 방법으로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행사하는것을 삼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제하고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정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 제2조(침략과 정의)에는 《선전포고없이 륙, 해, 공군에 의한 타국의 령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공격과 타국의 연안 또는 항구의 해상봉쇄 등을 먼저 범한 나라는 분쟁당사국간의 현행협정에 준하여 국제분쟁에 있어서 침략으로 인정된다. 》고 규제하고있다.

유엔총회 제58차회의에서는 인민들과 그들이 합법적으로 선거한 지도자나 정부를 반대하는 그 어떤 형태의 무력침공이나 무력사용 혹은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15항에는 《본 정전협정은 적대쪽의 일체 해상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봉쇄책동을 감행함으로써 그나마 형식상 존재하던 조선정전협정의 마지막조항인 해상봉쇄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말끔히 날려버렸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군사적위협과 공갈, 봉쇄형제재를 통하여 침략전쟁행위를 실천적으로 감행하고있다.

3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천적이며 전면적인 침략책동,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단호한 선제타격으로 그를 철저히 짓부셔버릴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초안) 제9조에서도 《매개 국가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리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며 혹은 국제법과 질서를 랑렬질수 없는 기타 방법으로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행사하는것을 삼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제하고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정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 제2조(침략과 정의)에는 《선전포고없이 륙, 해, 공군에 의한 타국의 령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공격과 타국의 연안 또는 항구의 해상봉쇄 등을 먼저 범한 나라는 분쟁당사국간의 현행협정에 준하여 국제분쟁에 있어서 침략으로 인정된다. 》고 규제하고있다.

유엔총회 제58차회의에서는 인민들과 그들이 합법적으로 선거한 지도자나 정부를 반대하는 그 어떤 형태의 무력침공이나 무력사용 혹은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15항에는 《본 정전협정은 적대쪽의 일체 해상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봉쇄책동을 감행함으로써 그나마 형식상 존재하던 조선정전협정의 마지막조항인 해상봉쇄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말끔히 날려버렸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군사적위협과 공갈, 봉쇄형제재를 통하여 침략전쟁행위를 실천적으로 감행하고있다.

3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천적이며 전면적인 침략책동,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단호한 선제타격으로 그를 철저히 짓부셔버릴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는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또한 1970년 12월 16일 국제안전을 강화할데 대한 선언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려는 외부의 간섭과 강권을 반대하여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려는 인민들의 권리를 엄숙히 존중하며 다른 나라의 민족적단결과 령토완정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해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재확언한다. 》고 규제하였다.

또한 록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 제40조에는 일방이 정전협정을 심히 위반하는 경우 타방은 협정폐기의 권리를 가질뿐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를 개시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 전쟁행위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선택은 침략의 본거지들을 완전히 들어내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대전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조선적인 총선거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남조선괴뢰당국이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적인 련방국가를 창설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전면거부한 조건에서 우리의 통일대전은 외세에 의하여 강점된 령토를 되찾기 위한 정정당당한 국가자주권의 행사로 되며 어떤 경우에도 침략으로 매도될수 없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부단히 강화해오다 못해 수많은 핵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수단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져야 할것이다.

일단 우리의 타격이 시작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를 겨냥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대상들만을 겨냥한 정밀타격전으로 될것이며 우리는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으로서 해당한 법규들을 준수할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경제적리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책임적으로 강구할것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바로 보고 그에 대처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선택을 존중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6일

평 양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믿음직한 핵억제력으로써만 지킬수 있다

우리 나라 대표 유엔군축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우리 나라 대표가 3일 2017년 유엔군축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대표는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는 핵군축문제가 현재 기로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핵무기현대화와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에 기초한 전략적핵우세를 차지하려는 시도들이 보다 로골화되고 강화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오늘날 미국의 무분별한 핵무력증강과 현대화책동으로 전지구적인 불안정과 예측불가능한 핵전쟁의 위험성이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으며 그에 대처하여 핵보유국들도 전략핵무력의 량과 질을 개선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전략적핵우세로 세계를 계속 제패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패권주의가 종식되지 않는 한 핵군축분야에서 그 어떤 진전도 기대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과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의 제기는 오직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힘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핵위협과 군사적행동을 종식시킬 때만이 가능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날 첨단급의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는 나라도 미국이며 그를 기둥으로 한 세계제패를 국가전략으로 떠벌이 내세우고있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력대 위정자들은 《핵군축》이요, 《핵무기없는 세계》요 하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핵제패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제창하면서 이전 행정부시기부터 추진되여오던 1조US$의 거액이 드는 핵무기현대화가 변함없이 진행되고있으며 다른 핵대국과 맺은 핵무기축감조약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돌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인류에게 첫 핵참화를 들씌운 핵범죄국가인 미국의 로골화되는 패권적야망과 핵무기현대화책동은 이 행성에서 핵전란의 위험과 핵군비경쟁만을 더욱 증대시킬뿐이다.

오늘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발발위험까지 배태한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다.

국제공동체가 해마다 목격하다싶이 조선반도정세가 자주 통제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연습을 자꾸 벌려놓고있는데 근원이 있다.

조선반도주변에서는 지금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여러 추종국가병력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이 투입되고 미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자산들이 총투입되였다.

지난해말부터 남조선에 600만t이상의 탄약과 장비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인 미국은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가족들과 미국시민권을 가진 제류자들을 긴급대피시키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핵전쟁연습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4D작전》이 보다 구체화되고있으며 지어 주변국들을 노린 《싸드》배비를 가상한 훈련까지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수십만의 침략무력과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주권국가의 《수뇌부제거》를 위한 《참수작전》과 핵, 로케트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기본을 둔 《특수작전》훈련을 감행하는 미국의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미국은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은 무명성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해보려 하였지만 그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이번에 유사시 상대측에 은밀히 침투하여 지휘부를 제거할 임무를 맡은 미국의 특수작전기련대들이 도적고양이처럼 우리 령공가까이에 기여들어 정밀폭격훈련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명한것인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핵보유에 대처하기 위한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연습이라고 떠드는것은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합리화해보려는 술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핵화약고나 다름없는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질에 광분하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정세격화의 주범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계단식확대이며 침략적인 적대시책동의 뚜렷한 발로이다.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수 있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적권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여 세기를 이어온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온 끝에 부득이하게 핵무장의 길을 택하였다.

자기 나라의 문턱, 자기 상공의 변두리에 적대적인 렬강의 핵병기들이 출몰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가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핵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리해하기 힘들수도 있다.

조선반도가 미제의 횡포무도한 핵전쟁도발책동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해올수 있은것은 우리 공화국의 견결한 평화수호의지와 노력,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로선이다.

우리의 핵보유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위협을 가하던 록제의 핵시대로부터 정의의 핵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믿음직한 핵억제력으로써만 지킬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해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계속하여 그는 로골적인 핵위협과 전쟁연습, 제재와 봉쇄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자주권침해와 제도전복책동들에 다시한번 군축위원회가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을 위한 뿔럭불가담운동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세계보건의 날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된 날이다.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되였으며 그후 이날은 세계보건의 날로 정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보건문제들과 보건사업을 맡아보는 유엔산하 전문기구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해마다 세계보건의 날을 계기로 다양한 주제의 행사들을 조직하여 나날이 증대되는 보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절박한 보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기간 성원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협조를 제공하고 나라들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퇴치하고 보건일군들을 양성하며 의학과 보건에 관한 연구를 적극 추진시켜 인류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왔다.

의학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보건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지만 아직도 불결한 위생조건과 환경오염, 의료봉사부족 등 인간의 생명을 해치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통제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불량식품, 가짜식품들이 적지않게 생산, 류통되여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있다. 조류독감을 비롯한 전염병들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며 때없이 발생하고있다.

인간의 생명활동에 도전해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세계적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세계보건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이다.

이미 오래전에 무상치료제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시책이 실시되고있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이 국가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되여있으며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1973년 5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한 성원국으로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경제 장성

인디아에서 지난해 경제가 6.6% 장성하였다.

1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전염병방지조치

—케니아에서 최근 소아마비에 방접종깜빠니야가 진행되였다.

5일동안의 전국적인 깜빠니야기간 450만명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화펜을 접종받았다.

이 사업에 많은 의료일군들이 동원되였다 한다.

—나이제리아에서 전염병방지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정부는 카노주에서 뇌막염과 마싸일병이 만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주에 경보령을 내리고 환자들을 제때에 치료하기 위한 의료집단을 조직하였으며 병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해당 기관에 알릴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였다.

범죄반대투쟁 강화

케니아경찰이 3월 31일 몸바사시에서 만마약작전을 벌려 많은 량의 헤로인과 코카인을 압수하고 밀매업자 12명을 체포하였다.

같은 날 잠비아의 서부지역에서 240여kg의 상아가 몰수되고 12명의 범죄자가 붙잡혔다.

최근 캄보쟈의 프놈펜시와 칸달주에서 위조품생산을 업으로 하던 3개의 제조소가 적발되여 약 30t의 가짜화장품과 그 제조에 쓰이던 많은 설비들이 압수되였다.

니 까 라 과 의 폭 포

파업

뽈스까의 전국각지에서 3월 31일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는 수백개의 학교와 유치원의 교육자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참가자들은 당국이 앞으로 교육부문에서 일자리를 대폭 축감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처지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파업으로 학교와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싸드》배치책동 규탄

중국외교부 대변인 륙강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싸드》배치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는것은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정화와 안정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가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세계와 지역의 전략적안정을 파괴할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배치과정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미군기지설치반대투쟁

일본 오끼나와현의 나고시에서 1일 미군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는 통성투쟁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캠프 슈와브미군기지앞에서 앉아버티기를 하면서 헤노코연안지역에서의 미군기지건설공사를 당장 중지시키고 현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미군기지유지비와 관련한 재정적부담을 줄일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수리아군 테로분자들의 대규모공격 격퇴, 반공격 개시

수리아군대가 최근 하마시를 점령하려던 테로분자들의 대규모공격을 격퇴하였다.

항공대의 지원밑에 수리아군은 3월 21일부터 4일동안에 2 100명의 테로분자들을 소멸하고 55대의 적장갑차와 중무기를 실은 100여대의 자동차를 파괴하였다.

이어 반공격으로 넘어간 이 나라 군대는 테로조직잔여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진입하였다.

29일 수리아군은 알레뽀도 동부지역에서 《이슬람교국가》테로분자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어 주요거점인 테이르 하페르시를 탈환하였다.

현재 정부군은 테로분자들에게 점거되여있는 마지막도시인 마스카나로 진격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054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